

아르데코 양식의 미적모티브를 이용한 가방디자인

남 혜 진 · 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20세기 초에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응용되고 있는 독특한 감성의 아르데코는 과거의 양식에 연루되지 않은 순수하고 모던한 시대정신을 지닌 양식이다. 이는 현대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형성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며, 기계와 금속 같은 신소재 사용과 과감한 색 배합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단순한 선의 사용과 속도에 대한 선호, 기능성에 따른 장식적인 성향을 보였다. 아프리카,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양식을 절충한 아르데코는 소재와 색상 그리고 실루엣을 조화롭게 발전시켰고, 패션, 예술, 문학 등의 모든 장르에 걸쳐서 독특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형성시켰다. 특히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수공예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특성으로 대중적인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는 양면성은 아르데코 양식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의 유행과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패션과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회화, 문학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을 분석하여, 실루엣, 선, 색채, 재질, 패턴 등의 조형적 요소와 미적가치로 범주화 하였다. 또한 아르데코의 미적모티브를 바탕으로, 콘셉트 이미지맵을 제작하고, 총 6개의 가방디자인과 도식화를 제시하였으며, 1개의 프로토타입을 실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당대 시대사조의 가방디자인 혹은 디자인 분야만을 참조하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과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요소에서 시작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연구가 미흡한 가방디자인 분야에 차별화된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고, 가방디자인 프로세스와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아르데코, 가방디자인, 미적모티브, 모던디자인, 이국적인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aha@snu.ac.kr

접수일: 2018년 3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6일

I. 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 이후로 기계와 기술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기계 생산에 용이한 선과 장식의 단순함이 요구되면서, 모던디자인 개념이 형성되었다.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은 기계화, 표준화, 대량생산의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현대 세계의 물질적인 외관과 생활양식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근대화 운동이었다(Jung, 2005). 이 시기의 주요 예술사조였던 아르데코 양식은 과거의 것에서 탈피한 당대의 현대적인 스타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까지 꾸준히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르데코 양식에 관한 패션분야의 연구는 주로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색채 혹은 미술사조와의 연관성 등으로 단편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왔고 아이템도 주로 의류로 국한되어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액세서리인 가방디자인에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Lussier(2003)에 따르면 1920년대에 유행했던 여성의 슬립 드레스에는 포켓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가방이 중요한 액세서리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르데코 양식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그 미적가치와 특성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방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데코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고유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미술사조, 문학 등 아르데코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요소들에서 디자인을 위한 미적모티브를 도출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의류분야에 집중되었던 디자인 개발에서 더 나아가 주요 패션 액세서리인 가방디자인의 과정을 제시하고 실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이는 이제까지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가방디자인 분야에 콘셉트 설정과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제작을 위한 설계도인 도식화와 제품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아르데코의 기본양식이 나타난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아르데코가 번성했던 프랑스와 미국으로 한정하였고, 가방디자인의 미적 모티브가 될 아르데코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고유의 특성 그리고 스타일분석을 위해, 아르데코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처음으로 이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규정한 역사학자 베비스 힐리어(Bevis Hillier)의 전문서적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선행연구와 인터넷 사진자료 등을 통한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3. 연구과정

한 시대의 유행과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패션과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회화, 문학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을 분석하여, 실루엣, 선, 색채, 재질, 패턴 등의 조형적 요소와 미적가치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미적모티브를 바탕으로, 콘셉트 이미지맵을 제작하고, 총 6개의 가방디자인과 도식화를 제시하였으며, 1개의 프로토타입을 실물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르데코의 발생과 유행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전시회 『L'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

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식을 처음 선보였는데, 그 명칭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Paris 25’, ‘Style 1925’ 혹은 ‘La Mode 1925’ 등으로 불렸다(Hillier, 1968). 그 후 1966년에 파리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열린 전시회 『Les Années 25』는 카달로그의 부제를 ‘Arts Déco’로 칭했다. 1966년 11월 2일 『The Times』에 실린 힐러리 겔슨(Hilary Gelson)의 ‘아르데코(Art Deco)’ 기사에서는 당대 감정가들에게 아르데코로 알려진 스타일을 소개했고, 바로 1년 후인 1967년 11월 2일에 프랑스 잡지 『Elle』도 키스 반동겐(Kees Van Dongen),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및 앙드레 그루트(André Groult)의 가구스타일에 대해 ‘Les Arts Déco’라고 칭하기도 하였다(Hillier, 1968). 또한 1968년에 힐리어는 그의 책 『Art Deco of the 20s and 30s』에서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정의를 내린다. Hillier(1968)에 의하면 아르데코는 1920년대에 발달하여 1930년대 절정에 이른 현대적인 스타일로 아르누보(Art Nouveau), 큐비즘(Cubism), 러시아인 발레(Russian Ballet), 아메리칸 인디안 아트(American Indian Art) 그리고 바우하우스(Bauhaus) 등의 다양한 소스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네오클래시즘(Neo-Classicism)처럼 고전적인 스타일이었지만 로코코(Rococo)나 아르누보와는 달리 비대칭이 아닌 대칭으로, 그리고 곡선보다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이며 간결함을 특성으로 하였다.

20세기 초는 충격적인 변화가 가득했던 격동기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과 소비가 시작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라디오, 전화 등이 보급되었으며, 문학의 언어, 음악의 음향, 시각예술의 현상학 등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져야 했다(Hillier, 1983/1993).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디자인을 지배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적합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기하학적이며 기능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은 과거의 어떤 것에도 연루되지 않는 순수하고 신선한 하나의 혁명이었다(Jung, 2005).

모던 무브먼트(modern movement)를 선도했던 프랑스의 아르데코 성향은 정서적 표현성이 강했던 반면에 다른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아르데코는 기능주의와 경제적인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지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Jung, 2005). 20세기 전반기 뉴욕은 아르데코의 도시였으며, 또 온갖 이민족들이 몰리는 이방인의 도시였다. 파리 박람회 『L'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는 미국에 강렬한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미국의 신문과 잡지들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디자인 진흥을 고취하였다. 또한 여러 장식미술 협회들도 프랑스의 미술가, 디자이너들이 산업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장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hin, 2008).

2. 아르데코 양식의 특성

1920년대 초 서구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흥분과 들뜬 분위기가 지속되고, 바, 댄스홀, 레스토랑 등이 매일 문을 열었으며 즐거움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넘쳤다. 패션은 삶의 한 방식으로 최신행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최신 댄스, 외국 악센트, 금지된 책 등을 포함하는 용어가 되었다. 파리의 패션잡지 『Art, Goût, Beauté』 1924년 3월호에서는 1920년대의 아르데코 운동의 핵심이자 패션의 특징을 ‘엑조티즘(exoticism)과 모더니티(modernity)의 독특한 조화’라고 요약하였다(Lussier, 2003). 즉, 아르데코의 양식의 특별한 매력은 옛 것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대결, 혹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의 소설 『The Great Gatsby』에서 묘사한 것처럼 반짝임과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허약함과 비극의 암시와 같은 모순과 이중성이다. 아르데코 제품들은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꼼꼼하게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엘리트와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인이고, 새롭고 저렴

한 재료로 대중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아르데코 장식은 자연주의적이면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외관을 아우르며, 표면장식은 없지만 형태 자체는 장식적이다(Benton et al., 2003).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유럽에는 일본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기 시작했고, 1910년대에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여 유럽에 동양적인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했다(Lee & Je, 1999). 또한 아르데코는 1905년 유럽에서 나타난 아방가르드(avant-garde) 운동인 야수파(the Fauves), 파리의 큐비스트(Cubists), 이탈리아의 미래파(Futurists) 그리고 러시아의 구성주의(Constructivists) 등 독특한 아트와의 연관으로 파생되었다. 큐비즘이 아르데코에 특징적인 현상을 부여하였다면 러시아 발레는 아르데코에 색채를 부여하였는데, 이전에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유행하던 파스텔 색조에서 벗어나 새롭고 원색적이며 격동적인 현란한 오렌지, 에메랄드, 비취 그린, 보라, 모든 종류의 진홍과 빨강 그리고 금색, 은색을 비롯하여 보석적인 색조도 유행하였다(Hillier, 1983/1993). 러시아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는 발레 뤼스(Ballets Russes)를 세우고 이국적인 주제와 세트장 그리고 의상으로 발레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했고, 국제적으로 진취적인 아티스트와 음악가를 고용했다. 러시아 대중들에게는 지나치게 혁신적이었던 그는 1909년 파리로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다. 아르데코 발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던 발레 뤼스는 화가이자 무대 미술가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였던 레온 박스트(Léon Bakst)와 함께 파리 여성들의 드레스에 이국적인 영향을 주었고, 깨진 유리 와 큰 세련 장식 등 약간의 큐비스트 모티브를 가미했다(Lussier, 2003). 19세기 후반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은 1884년 아프리카의 분할을 초래했고,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의 미술이 유럽에 대량 유입되면서, 원시미술의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기법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Choi, 1999). 복식사가 제임스 레버(James Laver)는 박스트

로 인해 ‘모든 여성들이 동양 하렘의 노예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고 하였고, 그의 과감하고 충격적인 색채배합에 영향을 받은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는 사파이어에 에메랄드를 함께 장식하기도 했다(Hillier, 1983/1993).

이 시기는 또한 여성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로, 1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가 복식에도 반영되어, 로우 웨이스트에 가슴은 납작하며, 짧은 박스형 의상을 입은 보이쉬 스타일의 여성 플래퍼(flapper)가 등장하였다. 또한 1922년 이집트 투탄카문 왕의 무덤 발견으로 이국 취향과 동방 취향은 더욱 고취되었다(Kim et al., 2010). 전등의 보급과 그에 의해 강렬히 빛나는 금속의 광택은 19세기까지는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변찍이는 것과 매끈한 것 등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속도는 20세기 도시적 삶의 핵심을 이루는데, 자동차나 철도, 배나 비행기에서 보이는 공기나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한 유선형 앞머리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Shin, 2008). Jitroy(as cited in Shin, 2008)에 따르면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는 1920년 잡지 『L'Esprit Nouveau』에 단순한 구조 그 자체가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고, 비행기와 자동차 리무진은 이 시대의 정신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며 예술과 장식미술, 예술과 기계생산의 경계를 허무는 아르데코의 시대정신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아르데코는 플라스틱, 철근 콘크리트 및 비타 유리 등 새로운 재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건축을 포함하여 실내, 가구, 의상디자인 그리고 공예와 그래픽 등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정착하였다(Ahn, 1990).

패션디자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회화, 문학 등의 분야에 나타난 아르데코의 특성과 미적모티브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분야의 아르데코

(1) 패션과 그래픽디자인

20세기 초에는 여성패션의 현대화를 위한 양상들이 스타일, 아이템, 패션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Park & Lee, 2010). 패션분야에서의 아르데코 정신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의 폴 푸아레(Paul Poiret)가 코르셋으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새로운 실루엣의 드레스를 발표했던 1908년 경을 시발점으로 보고, 1920년대까지 프랑스 파리 패션을 정점으로 보고 있다(Won, 2008). 푸아레는 1903년 파리에 자신의 의상실을 열고 아카데미한 전통에 계속 도전하며 현대패션의 시작을 열었고(Sung, 2010), 야수와 화가인 라울 뒤피(Raoul Dufy)에게 흑백의 강한 대비를 이루는 직물디자인을 의뢰하여 함께 텍스타일 프린트 공방을 설립하기도 하였다(Figure 1). 뒤피의 직물디자인은 꽃, 전원, 바다를 모티프로 하여 밝고 화려한 색조와 유연한 선이 특징이다(Lee & Je, 1999). 또한 흑인 예술의 도입과 흑인댄서 조제핀 베이커(Josephine Baker)의 영향으로 이전까지는 관심 밖의 색이었던 검은색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르데코의 단순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색이었다(Cho & Park, 1991). 푸아레의 새로운 직선 실루엣, 화려한 색채와 장식의 근원은 동양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19세기 말 유럽에서 절정을 이룬 ‘시노 자포니즘(Sino-Japonism)’에 대한 심취, 러시아 발레단의 의상과 색채, 천일야화의 영향에 의한 페르시아에 대한 열망 등에 매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Park & Cho, 1997). 이러한 영향은 직선형의 튜닉, 기모노 소매, 하렘팬츠, 술 장식, 터번 등으로 디자인에 표현되었다.

아르데코 시기의 패션은 샤넬에 의해 기능성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모더니티를 수용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담함으로 패셔너블한 의상을 간소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Stevenson, 2011/2014). 대표적인 디자인은 <Figure 2>와 같은 『Little Black

Dress』인데, 길고 좁은 소매의 단순한 직선형 실루엣으로 현대적이었다. 1926년 미국 『Vogue』의 ‘The Debut of the Winter Mode’ 기사에는 장 파투(Jean Patou), 샤넬 등 여러 패션하우스의 겨울 의상을 제시하며 특히 샤넬의 블랙색상 슬림,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드레스 ‘The bodice blouse’를 전 세계가 입게 될 패션 ‘Ford - model 817’이라고 언급하였다(Fashion: The Debut of the Winter Mode, 1926). 또한 샤넬은 남성의류로부터 빌려온 아이템을 많이 응용하였으며, 특히 남성 스포츠 의류의 실용적 가치와 귀족적 면모에 대한 잠재력을 패션 디자인 개발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스포츠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바지는 합리적이며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스타일로 남녀의 스포츠웨어에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되었다(Kim, 2013). 이 시기의 새로운 성적 이상은 양성공존(androgyne)이었고, 소녀들은 여성적 속성인 모든 곡선들을 완전히 버리고 소년처럼 보이려고 애썼다(Laver, 2002/2005). 샤넬은 1924년에는 <Figure 3>과 같이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발레단의 『Le Train Bleu』를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발레를 위한 의상이었지만 수영복, 테니스복, 골프복 등의 스포츠 웨어를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Won, 2008). 이처럼 아르데코 시기는 패션디자이너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을 함으로써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1931년경 아르데코 양식의 직물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는 고향 우크라이나의 전통 조각 침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아이의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추상패인팅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를 응용하여 추상 기하학적 디자인에 적용하였는데, 주로 원색을 사용하면서도 차갑고 모던한 강렬한 색상 대비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다(Stevenson, 2011/2014). 들로네의 직물과 의상 디자인의 조형성은 기하학적 추상과 색채의 동시



Figure 1. 라울뒤피의 직물디자인을 이용한 푸아레의 페르시아 코트(1911).
From Alexandra, (n.d.).
<http://www.artnet.com>



Figure 2. 샤넬의 블랙 바디스 블라우스(1926).
From Fashion: The Debut of the Winter Mode, (1926).
<https://media.proquest.com>



Figure 3. 러시아발레 『Le Train Bleu』 샤넬의 의상(1924).
From Le train bleu op.84, (1924).
<http://www.vogue.it>



Figure 4. 소니아 들로네의 동시성 드레스(1925).
From Jonathon, (2014).
<https://www.forbes.com>

대비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색채뿐만 아니라 콜라주 기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 것이 특징이었다(Chung, 2003). 컬러블록의 대비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적 흐름의 운동성은 그녀가 디자인했던 <Figure 4>와 같은 기하학 패턴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착장자로부터 패브릭 패턴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패턴에 장식 이상의 의미를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Won, 2008).

1920년대의 여성들은 일하고, 여행하고, 차를 운전하였으며, 그 어떤 시대보다 지적이고 활동적이었다. 포켓 없는 슬림 드레스의 유행으로 가방이 중요한 액세서리로 부각되었고 립스틱과 담배를 소지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동시에 너무 크지 않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었다. 낮에는 주로 가죽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납작한 형태의 포세트(pochette)를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들고 다녔는데 이는 주로 중국, 고대 이집트, 아프리카, 큐비즘아트 등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한 아르데코 스타일 디자인이었다(Figure 5). 저녁에는 드레스와 조화를 이루는 고급 원단에 정교하게 장식된 포세트와 파우치를 주로 사용하였다(Lussier, 2003).

1920년의 큐비즘은 회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곡선에서 직선의 간결한 표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아르데코 시기에 활동

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10년 동안 『Vogue』의 표지 편집을 맡았던 조지 르파프(Georges Lepape), 에드워드 가르시아 베니토(Eduardo Garcia Benito), 마리오 사이먼(Mario Simon)등이 있다(Kang, 2004). 1908년 푸아레는 업계최초로 자신의 디자인을 담은 소책자를 출판했는데, 폴 이리브(Paul Iribe)는 이 소책자 『Les Robes de Paul Poiret』의 일러스트를 그렸고, 푸아레는 이것을 1909년 『Salon d'Automne』에 전시하였다(Figure 6). 이는 푸아레의 의상 스타일과 잘 어울려 그가 패션계에서 주목받는데 공헌했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tevenson, 2011/2014). 푸아레의 의상들은 당시에 혁신적이고, 유명했지만 조지 르파프, 폴 이리브 그리고 라울 뒤피의 드로잉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Hollander, 1993).

아르데코 시대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로는 아돌프 무롱 카상드르(Adolphe Mouron Cassandre)와 에드워드 맥나이트 코퍼(Edward Mcknight Kauffer)가 있는데, 특히 1920년대부터 약 45년간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한 카상드르의 디자인은 주제 부각을 위한 과장된 원근법, 의도적인 형태의 왜곡과 명암 강조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하늘 표현을 통해 얻어진 공간감 등이 특징이다(Kang, 2001). 1927-1930년 사이의 철도여행 포스터에서는 차가운

금속성의 윤기를 내는 기관차의 표면, 단순한 선과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로 역동성과 속도가 느껴지는 아르데코적인 감성이 돋보인다. <Figure 7>은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의 야간열차 선전포스터인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험, 미래에의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간결한 조형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잘 반영한 것이다(Jung, 2005). 코페의 다양한 포스터 디자인은 모더니즘과 아르데코에 기여했는데, 입체주의, 미래주의를 이용하여 <Figure 8>과 같이 속도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Benton et al., 2003).

(2) 가구디자인

Choi(1999)의 연구에 나타난 아르데코 가구디자인의 형태적인 특징은 단순화된 볼륨감,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원시조형의 재해석이었고, 장식적 특징은 기하학적 모티프 사용과 자연 모티프의 단순화 양식화로 나타났다. 또한 황금색, 청록색 등의 사용과 이국적 재료, 표면의 광택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당시에 금속은 경이로운 것으로 신소재인 금속과 목재를 조화시키는 것이 유행이었다(Cho & Park, 1991). 철제 파이프 의자 같은 일상용 가구가 처음 고안된 곳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설립한 학교인 바우하우스인데, 이는 미술과 기계기술이 19세기처럼 분리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워졌다. 바우하우스의 기본 이념은 기능주의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형태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단순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Gombrich, 1997/2012). 이처럼 이 시기의 제품들은 기능과 아름다움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는 바우하우스의 가구제작 공방을 맡았는데, <Figure 9>와 같이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며 원시주의적인 목재의자들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나무대신 금속이나 천, 가죽을 이용하여 가구들을 디자인했다. 특히 1925년, 자전거 핸들에서 영향을 받아 디자인 한 굵은 강철관을 사용한 의자 『Wassily Chair』 <Figure 10>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여러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고, 브로이어는 집안에 크롬을 들여놓은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다(Whitford, 1984/2000). 이는 20세기 디자인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고전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의 대표적인 명작으로서 오늘날까지 생산되고 있다(Jung, 2009). 192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모던 디자이너 도널드 데스크(Donald Deskey)는 아르데코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Radio City Music Hall)의 기하학적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1925년 파리박람회를 관람하고 돌아온 후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인에 몰두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Figure 5. 이집트문양의 초록색 펠트가방(c.1920).
From Lussier.(2003). p. 67.



Figure 6. 푸아레의 로브(1908).
From Les robes de Paul Poiret. (1908).
<https://archive.org>



Figure 7. 카상드르의 북극성(1927).
From Etoile du Nord by A. M. Cassand. (n.d.).
<http://www.pullmangallery.com>



Figure 8. 성공을 향한 활공!(1918).
From Benton et al. (2003). p. 235.



Figure 9. 아프리카 의자(1921).
From African Chair. (n.d.).
<https://www.bauhaus100.de>



Figure 10. 바실리 의자(1925).
From Wassily Chair. (n.d.).
<https://www.knoll.com>



Figure 11. 테이블램프(1927).
From Benton et al. (2003). p. 340.



Figure 12. 1930s 도널드 데스크의 모던 라커 나무벤치.
From 1930s Donald Deskey Art Moderne Lacquered Wood Bench. (n.d.).
<https://www.1stdibs.com>



Figure 13. 장 미셸 프랭크의 테이블셋트.
From Set three parchment-clad nesting table. (n.d.).
<https://www.pinterest.co.kr>

소재들의 장식적인 잠재성을 탐구하고 개발했으며, <Figure 11>과 같이 크롬스틸과 유리를 접목한 모던하고 기하학적이면서 리듬감 있는 지그재그 튼니형태의 램프를 디자인하기도 했다(Benton et al., 2003). 이처럼 그의 디자인은 신기술과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튜블러 스틸 등의 실험적 소재 사용이 특징이고 <Figure 12>처럼 ‘유선형 모던’이라고 알려진 미국 특유의 스타일을 형성하였다(Slesin, 1989). 아르테코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 에밀자크 룰만(Émile-Jacques Ruhlmann)은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였는데, 흑단, 상아와 같은 고급소재를 18세기의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장식적인 목공예 기술과 접목시키며, 당대의 현대적인 기하학적 형식과 조화시킨 양식이었다(Han, 2009). 그는 엘리트가 유행과 흐름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상류층을 위한 사치스러운 디자인을 하였고, 대담하고 단순한 형태의 현대적

인 미를 가미시켜 풍부한 장식과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룰만의 가구 디자인이 1925년 파리 박람회 전시에 선보였을 때 가장 세련된 형태를 보여주며, 가장 매력적인 루이 16세 가구에 견줄만한 가구라고 평가되었다(Kim, 2007). 또한 프랑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가구 디자이너였던 장 미셸 프랭크(Jean Michel Frank)는 매우 장식적이지만 기하학적이기도 했던 아르테코 스타일의 흐름에서 사물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Figure 13). 그의 디자인은 직선이 강조된 기능적이며 조화로운 형태 안에 고급스러운 소재인 상어가죽이나 양피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살린 것이 특징이었다(Slesin, 1989). 이처럼 아르테코 양식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대중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호화롭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했다.

(3) 회화

아르데코에 영향을 미친 야수파(Les Fauves)라고 불린 화가들은 자연의 형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묘사 대상의 색깔을 닙을 의무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야수주의가 일으킨 색채의 해방이야말로, 20세기 회화가 르네상스 이후 400년 동안 지속된 예술의 재현 의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Jin, 2011). 이들 중 가장 유명했던 마티스는 자연을 그대로 복사할 수 없다고 하며 오리엔트 양탄자와 북아프리카 경치에서 색채의 짜임새를 연구했고, 눈앞에 전개된 장면을 장식적인 패턴으로 변형시키려고 하였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밝은 색채와 단순한 윤곽은 아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효과 같은 것이 있었다(Gombrich, 1997/2012). 이러한 색채해방은 형태의 해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야수주의에 가담했던 브라크는 야수주의를 떠나 피카소와 함께 입체주의 운동을 시작했다(Jin, 2011). 평면적 패턴의 단순화를 피하면서 사물을 입체감과 깊이감 있게 표현하고자 모색한 이 큐비즘은 20세기에 나타난 거의 모든 예술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미술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아르데코로 알려진 양식은 본질에 있어서 대중소비를 목적으로 순화시킨 큐비즘이었다(Hillier, 1983/1993).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디자인은 합리성과 구조적 기능성을 강조한 간결미를 추구하였으며, 명쾌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단순한 실루엣의 형태를 추구하였다(Choi & Choi, 2014). 특히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은 모든 대상을 입방체로 분석하여 화면상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사라지게 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게 했다(An, 2008). <Figure 14>는 피카소의 1907년 작품 『Les Femmes d'Alger』인데, 이에 결정적인 영감을 준 것은 아프리카 조각이다. 당시의 화가들은 새로운 생명력의 원천을 때 묻지 않은 원시 문명에서 찾으려고 하며 아프리카 조각과 가면을 수집하고 있었다(Jin, 2011).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격렬했던 미술혁신 운동에는 흑인조각에 대한 열병과 같은 예찬이 있었고, 피카소도 이에 매료되어 <Figure 15>와 같은 아프리카의 마스크에서 영감을 받은 기괴한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큐비즘의 바탕에는 비 문명권의 형태와 색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는 유럽 미술이 오랫동안 추구했으나 상실한 듯 보이는 강렬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매력 을 지니고 있었다(Gombrich, 1997/2012).

1990년에 출판된 『Art Deco Painting』에서 아르데코 회화를 통합, 분류하려는 시도를 했던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Edward Lucie-Smith)는 전형적인 아르



Figure 14. 아비뇰의 처녀들 (1907).
From Wikipedia. (n.d.b).
<https://en.wikipedia.org>



Figure 15. 서아프리카 단족의 가면(1910-1920).
From Gombrich. (1997/2012), p. 563.



Figure 16. 녹색 부가티를 탄 타마라(1929).
From Wikipedia. (n.d.a).
<https://en.wikipedia.org>

데코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의심할 여지없이 ‘타마라 드 렘피카(Tamara de Rempicka)’라고 저술한 바 있다. 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아르데코적 입체주의 경향과 모던한 빌딩배경은 ‘부드러운 입체주의’라는 독특한 화풍을 남겼다(Lee, 2012). 렘피카는 1920 년대에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사교계와 예술계에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었는데,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파괴하고 성에 대한 주제를 특유의 솔직함과 대담함으로 풀어내며 진보적인 여성상을 제시했다. <Figure 16>은 『Tamara in a Green Bugatti』로 대표적인 자화상인데, 붉은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삶의 주체자로서의 당당한 자신을 그린 것으로 세계대전 이후에 향상된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Wikipedia, n.d.a).

(4) 문학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의 저서 『The Fashion System』에서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자 의상의 체계를 논술하며,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이미지가 범람한다 하여도 이미지가 전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언어나 문자가 전달함을 강조하며, 유행에 대한 문학적 묘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Kim, 2013).

소설 『The Great Gatsby』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경제대공황 직전까지의 미국의 시대적 묘사와 함께 경제성장의 이면에 내재한 인물들의 도덕

Table 1.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문장에 나타난 아르데코 특징.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문장에 나타난 아르데코 특징
시대상황 및 여성상	그녀를 바라보면 기본이 좋아졌다. 몸매가 날씬하고 가슴이 작았는데, 마치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쭉 펴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자세가 더욱...(p. 23) 황금빛으로 그을린 조던의 날씬한 팔이 내 팔을 감았고, (p. 65) 여기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흐뭇한 시선으로 굴러보고 있는 개츠비의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보기 좋게 팽팽했고 (p. 75) 라벤더 속에 소중하게 보관 해놓은 곰팡내 나는 로맨스 말고 금년에 출시된 최신의 번쩍거리는 로맨스가 있을 것만 같았고... (p. 209)
패션에 나타난 색상, 소재, 패턴	둘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집 근처를 잠깐 비행하고 날아 들어온 것처럼 옷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펠릭이고 있었다. (p. 19) 막 옷을 갈아입은 윈스 부인은 이제 크림색 시폰으로 만든 정교한 야회복을 차려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 옷으로 방 안을 돌고 다니는 동안 계속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났다. 옷이 날개라더니 그 덕분에 인품마저 달라 보였다. (p. 49) 뉴욕에서 온 자동차들이 저택 안 도로 깊숙이까지 다섯 겹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벌써부터 홀과 살롱과 베란다는 원색 옷을 입고 최신 유행의 기묘한 단발머리에 카스티야 산보다도 좋은 술을 두른 여자들이 보였다. (p. 61) 현관문을 열었더니 흰 플란넬 양복에 은색 셔츠를 입고 금색 넥타이를 맨 개츠비가 급하게 들어왔다. (p. 121) 그녀의 드레스에 두줄로 나란히 달려있는 낯선 단추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p. 130) 그는 와이셔츠 더미를 끄집어내어 하나씩 우리 앞에 던졌는데, 옅은 리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란넬 셔츠가 떨어질 때마다 개켜졌던 자국이 퍼지며 가지각색으로 테이블 위를 덮쳤다. 산호 빛과 능금 빛 초록색, 보랏빛과 옅은 오렌지 색의 줄무늬 셔츠, 소용돌이무늬와 바둑판 무늬 셔츠들에는 인디언 블루 색으로 그의 이름의 머리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p. 131) 그 뒤를 따라 금색 늑골의 천으로 만든 작고 꼭 끼는 모자를 쓰고... (p. 171)
산업제품에 나타난 색상과 소재	창문은 반사된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따스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p. 17) 개츠비의 화려로운 자동차가 돌이 많은 차도를 비틀거리며 올라와 우리 집 문 앞에 멈추고 세가지 음정의 멜로디로 경적을 울려댔다. 짙은 크림색에 니켈이 번쩍이고, 피물처럼 기다란 차체 곳곳에 뿔내듯이 모자 상자와 음식상자 그리고 장난감 상자가 놓여있었고... 여러 겹의 유리창 뒤로 일종의 녹색 가죽 운실 같은 자동차를 타고 우리는 시내를 향해 출발했다. (pp. 93-94) 주소를 적고 싶으면 여기 내 금제 연필을 쓰세요. (p. 153)

From Fitzgerald. (1925/2003).

적 타락과 부패를 그리면서 전쟁 후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방황하던 아르데코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Lee & Kim,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의 화려한 모습과 속물적이었던 미국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언론과 비평가들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을 들은바 있는 피츠제럴드의 1925년 소설 『The Great Gatsby』에 표현된 아르데코 시대의 미적모티프를 분석하였다. 특히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등장인물들의 의상 그리고 산업디자인 제품의 색상, 소재, 패턴 등과 시대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문구를 발췌하여, 아르데코 양식의 특징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Fitzgerald, 1925/2003).

III. 아르데코 양식의 미적모티프

1. 아르데코의 조형성 및 미적특성과 가치 분석

선행연구와 전문서적을 분석한 이론적 배경에

서 살펴본 아르데코 양식의 특성은 패션과 그래픽 디자인, 가구디자인, 회화, 문학 등의 예술전반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며 1920년대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정착하였다. 한 시대의 유행과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여러 디자인분야의 사례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선, 색채, 재질, 색상, 패턴 등 표면적인 조형적 특성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2>와 같다.

아르데코 양식 디자인의 미적모티프 분석결과, 재료의 속성 자체를 살리는 단순한 선의 사용경향이 두드러졌고, 바둑판무늬 혹은 속도감이 느껴지는 스트라이프 패턴 등이 많았다. 또한 새로 등장한 기계와 금속 같은 신소재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플한 형태의 모던경향을 원시조형으로 재해석하는 특징도 보였다. 색채는 흑백, 원색과 함께 현란한 오렌지, 민트, 에메랄드 등의 이국적 취향으로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금은색의 강렬하게 빛나는 효과와 과감한 색 배합이 특징적이었다.

아르데코 양식의 표현특성을 고유의 미적특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전의 양식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과감한 혁명성 그리고 새로 등장한

Table 2. 아르데코의 미적모티프 분석.

	아르데코의 미적 모티프
패션과 그래픽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 직선적, 사각 형태, 기하학적인 선, 간결하고 단순한 선, 스트라이프, 직선적, 윤곽선이 뚜렷하고 대담한 선, 속도의 표현 * 색채 : 흑백, 원색, 금색과 은색의 강렬하고 빛나는 색, 뚜렷한 색채 대비, 러시아 발레의 현란한 오렌지, 에메랄드, 핑크, 레몬옐로우, 스카이블루, 민트, 그린같은 샤페트톤, 검정색, 흰색, 주홍색, 금속성 은색, 회색, 노란색. 차가운 금속성의 윤기표현 * 패턴 : 추상성 강조한 대담한 기하학적 무늬, 양식화된 식물 및 꽃문양, 이국주의 영향의 동양 문양, 페르시아&이집트 문양, 지규랫문양, 기본형태의 반복, 동심원, 체크무늬 등 * 특성 : 원근법의 사용, 의도적인 형태의 왜곡, 명암의 강조 그리고 그라데이션 표현, 공간감, 단계적 크기 변화, 돌출된 글씨체
가구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 단순한 직선미, 기하학적 선,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 , 바둑판무늬, 줄무늬 * 재질 : 유리나 스틸, 크롬도금 번쩍이는 것, 매끈한 것, 광택을 느끼게 하거나 금속과 목재를 조화, 에보니, 흑목, 상아, 거북이 등껍질 등 * 색채 : 흑백, 금속성 은색, 금색, 브라운, 아이보리 등
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 입방체, 기하학적 형태 단순함, 단조로운 색면과 심한 굴곡을 보이는 윤곽선이 특징 * 색채 : 강한 녹색, 오렌지색, 검정색, 금속성 은색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묘사 :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며, 햇빛에 황금빛으로 그을인, 최신유행의, 니켈이 반짝이고, 금년에 출시된 최신형의 번쩍거리는, 호화로운 * 색채 : 황금빛, 흰색, 짙은 크림색, 분홍색, 원색, 녹색, 은색, 산호 빛, 능금 빛 초록색, 보라색, 오렌지색의 줄무늬, 소용돌이무늬와 바둑판 무늬,인디언 블루

Table 3. 아르데코의 미적특성과 가치 분석.

	아르데코의 미적특성과 가치
혁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던한 시대정신과 디자인 : 과거의 양식에 연루되지 않은 순수하고 신선한 경향 * 현대적인 새로운 여성상 확립 :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솔직하고 대담한 성향을 지니게 되고, 여성적인 곡선을 버리고 직선적인 실루엣을 추구 * 성에대한 관념확장 : 남성성을 추구하는 양성공존 혹은 성에대한 파격적인 주제파괴 현상 * 기계화에 따른 신소재사용 : 새로 등장한 기계와 금속 같은 신소재 사용에 적극적이었고, 패션에서는 특히 러시아발레 의상에서 영향 받은 개진 유리화나 큰세련 장식 등의 과감한 재료사용, 충격적인 색채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색배합을 시도 * 새로운 미의식 : 전등의 보급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변칙적이고 매끈한 것, 강렬히 빛나는 금속광택에 대한 선호
가능성 &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선과 실루엣 : 재료의 속성 자체를 살리는 단순한 선과 실루엣, 명료한 윤곽선 * 속도에 대한 선호 : 공기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형디자인 대두 * 탈 장식적인 성향 : 단순화된 볼륨감, 대칭, 직선적, 기하학적, 간결
이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 투탄카문 왕의 무덤발굴로 인한 이국적 동방 취향 * 아프리카 : 원시미술의 영향 * 일본문화, 러시아 발레 등의 영향 * 새로운 색채 선호 : 흑인예술의 도입으로 관심 밖의 색이었던 블랙의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원시조형을 재해석하거나 화려한 경향을 보임
절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조의 절충 : 큐비즘, 러시아발레, 미국인디안 아트, 바우하우스 등 서로 다른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소재 혹은 색상을 절충하며 다양한 실루엣을 조화롭게 발전 * 소재절충 : 전통적인 목재와 상아, 진주, 옥철 같은 이국적인 재료들 그리고 금속 및 유리 등의 현대적인 재료의 조화 * 예술과 산업 절충 : 예술가와 장인의 구별을 넘어 대량생산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패션과 예술과 문학의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협력으로 독특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이 형성 * 기능과 아름다움 사이의 조화
이중적 양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것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존 * 화려함 이면의 공허한 이중성 *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수공예적인 방식을 고수 * 단순하고 기능적인 특성으로 대중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엘리트층을 타겟으로 고급스러운 추구 * 자연주의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이고, 표면장식성은 없지만 형태자체는 장식적

기계에 따라 기능을 추구하는 단순성, 아프리카 원시미술과 러시아, 일본 등의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융합시킨 이국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예술사조의 절충, 전통적인 소재와 신소재의 절충, 예술과 산업 간의 절충, 기능과 아름다움 사이의 고민 등의 절충성은 아르데코 양식만의 독특한 미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옛것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존 그리고 화려함 이면의 공허, 대중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추구, 자연주의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양면성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아르데코 양식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르데코 양식 고유의 미적특성과 가치는

혁명성(modern & unconventional), 기능성과 단순성(functionality & simplicity), 이국성(exotic), 절충성(eclectic), 이중적 양면성(contradict)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아르데코의 영향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미적모티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여 가방디자인의 아이디어로 응용하였다. 아르데코 양식의 선행연구와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Table 2>와 <Table 3>에서 분석한 조형적, 미적특성 및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가방디자인에 응용하고자 도출한 미적모티브는 <Figure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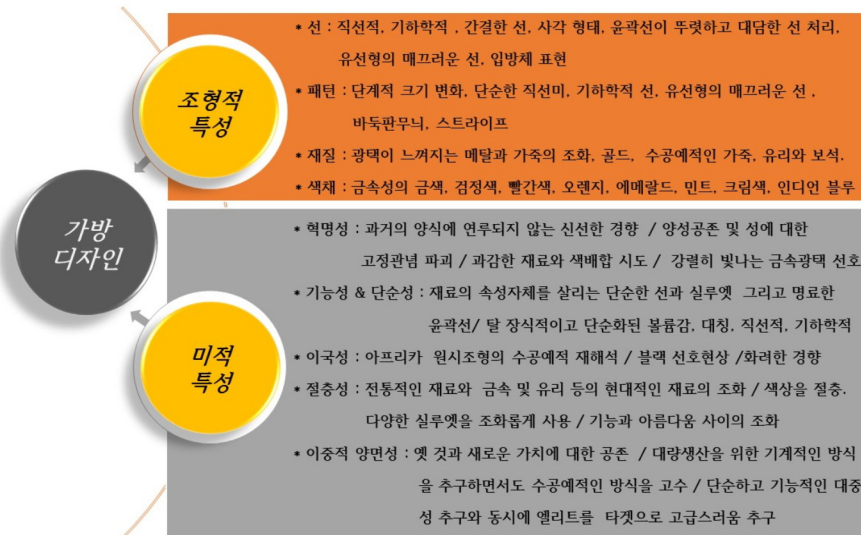


Figure 17. 가방디자인을 위한 아르데코 양식의 미적모티브 도출.

2. 가방디자인을 위한 아르데코의 미적모티브 도출

IV. 아르데코 양식의 미적모티브를 이용한 가방디자인

1. 콘셉트 설정 및 이미지맵 작성

아르데코 시대의 감성을 담은 가방디자인을 위하여 1920년대 파리로의 낭만적인 여행이라는 콘

셉트를 설정하고, <Figure 18>과 같이 당시의 분위기와 감성을 표현하는 타이틀 ‘Midnight in PARIS’로 이미지맵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한 <Figure 17>의 아르데코의 미적모티브와 특성 외에도 소설 『The Great Gatsby』, 램피카와 들로네의 그림들 테스키와 프랭크의 가구 디자인을 비롯한 재즈무드 등의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감성을 가방 디자인 영감을 위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아르데코 양식의 표현특성을 고유의 미적특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전의 양식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과감한 혁명성 그리고 새로 등장한 기계에 따라 기능을 추구하는 단순성, 아프리카 원시미술과 러시아, 일본 등의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융합시킨 이국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예술사조의 절충, 전통적인 소재와 신소재의 절충, 예술과 산업 간의 절충, 기능과 아름다움 사이의 고민 등의 절충성은 아르데코 양식만의 독특한 미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옛것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존 그리고 화려함 이면의 공허, 대중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움 추구,



Figure 18.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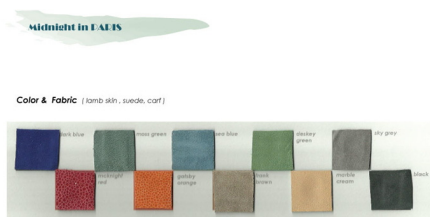


Figure 19. 색상과 소재 맵.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2, 2015).

자연주의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양면성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아르테코 양식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르테코 양식 고유의 미적특성과 가치는 혁명성, 기능성과 단순성, 이국성, 절충성, 이중적 양면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Table 3).

2. 컬러선정 및 소재개발

아르테코 양식의 비비드하고 이국적인 컬러를 가방디자인에 표현하기 위해 <Figure 17>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흑색, 레드, 오렌지, 에메랄드그린, 베이지, 인디고 네이비 등을 주요색상으로 하고, 골드를 포인트 컬러로 선정하였다(Figure 19).

또한 가방의 주재료가 되는 가죽은 부드러운 양가죽, 스웨이드, 그리고 소가죽을 사용하여 아르테코 감성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고, 골드메탈 장식과 유리 그리고 큰 주얼리 등의 과감한 재료를 혼합하여 새로운 미적효과를 시도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토속적이고 이국적인 성향도 보이는 아르테코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죽을 자르고 끼우는 수공예방식의 소재를 개발하여 디자인에 응용하였다(Figure 20).

3. 가방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조형적, 미적 특성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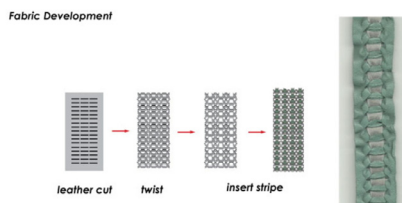


Figure 20. 소재 개발과정.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2, 2015).

방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Figure 23>의 백팩 디자인은 이미지맵<Figure 18>에 나타난 아르테코 양식 라디오의 독특한 실루엣을 이용한 것이고, 아르테코 그래픽 디자인에 나타나는 속도감과 역동성은 가방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표현했다. 또한 당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아름답게 여겨진 신소재 금속은 가방의 핸들과 여밈 장식으로 과감하면서도 심플하게 적용했다. <Figure 24> 디자인은 <Figure 11>의 크롬스틸과 유리를 접목한 새로운 소재 배합방식의 램프처럼, 바둑판무늬의 다양한 색상의 유리를 메탈프레임으로 장식하고 기하학적인 리듬감을 주는 디테일로 응용하였다. 특히 아르테코 양식의 주요특징인 기능성은 <Figure 21>과 같이 백팩, 클러치, 숄더백의 다용도로 변환되는 디자인 그리고 지퍼를 여닫으면 형태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Figure 22>와 같은 멀티기능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기존의 시대사조 디자인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시각적인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차용했던 단편적이고 일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당대의 특징 및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아우르고자 했다. 특히 디자인 <Figure 21>과 도식화 <Figure 27>은 '2013 Fashion Neoprene Awards, Leghila Italia'의 4위 온라인 수상작이다.

4. 가방디자인 도식화

도식화 작성은 제품제작을 구체화시키는 설계도로, 디자인을 상품화하기 위한 중요한 중간단계



Figure 21. 디자인 1.



Figure 22. 디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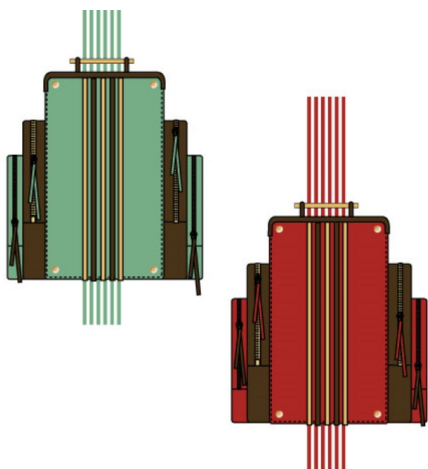


Figure 23. 디자인 3.



Figure 24. 디자인 4.



Figure 25. 디자인 5.



Figure 26. 디자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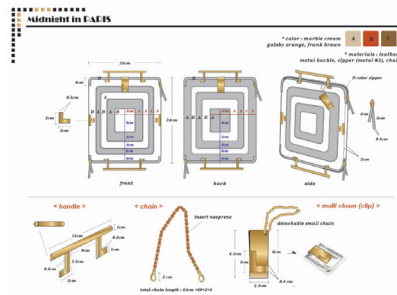


Figure 27. 디자인 1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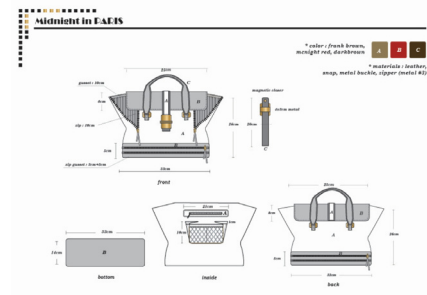


Figure 28. 디자인 2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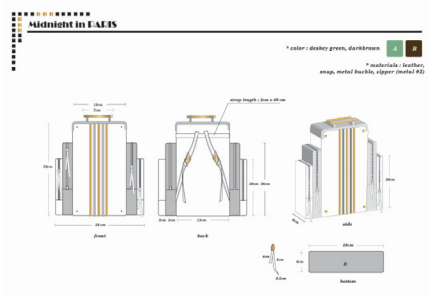


Figure 29. 디자인 3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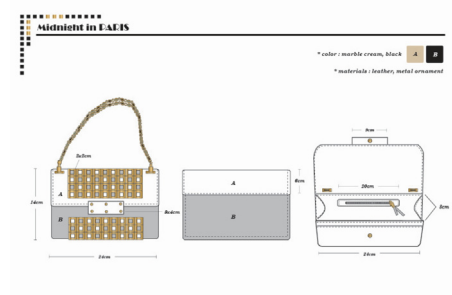


Figure 30. 디자인 4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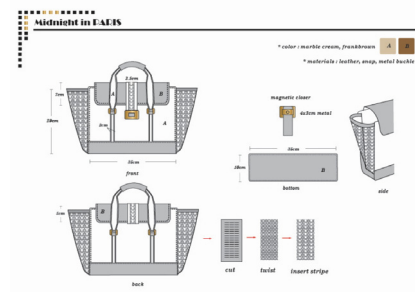


Figure 31. 디자인 5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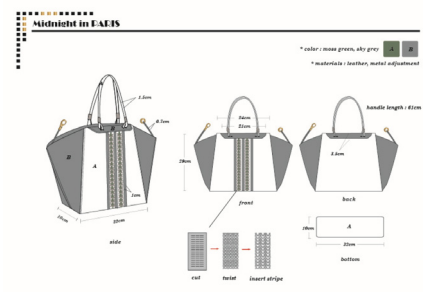


Figure 32. 디자인 6 도식화.



Figure 33. 가방 프로토타입 제작.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12, 2015).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가방디자인에 대한 도식화를 자세히 제시하여, 상품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Figure 27-32).

5. 가방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

<Figure 26>의 가방디자인 도식화 <Figure 32>를 바탕으로 최종 제작한 가방디자인은 <Figure 33>와 같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데코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고유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한 시대의 유행과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미술사조, 문학 등 사회적인 요소에서 가방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분석하여, 실루엣, 선, 색채, 재질, 패턴 등의 조형적 요소와 미적가치를 범주화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콘셉트 이미지맵을 제작하고, 총 6개의 가방디자인과 도식화를 제시하였으며, 1개의 프로토타입을 실물 제작하였다.

20세기 초에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가치로 꾸준히 응용되고 있는 아르데코는 현대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형성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며, 과거의 답습을 벗어난 순수하게 새롭고 모던한 시대정신을 지닌 양식이었다. 아르데코 양식의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가구디자인, 미술사조, 문학에 나타난 미적모티브의 분석결과, 선은 주로 재료의 속성을 살리는 단순하고 직선적이거나 유선형의 매끄러운 형태를 보였다. 또한 스트라이프, 바둑판무늬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거나 속도감이 느껴지는 선의 사용을 가방디자인의 실

루엣, 장식 그리고 패턴디테일로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새로 등장한 신소재인 금속의 사용경향을 가방의 핸들과 여밈 디자인으로 과감하면서도 심플하게 적용했다. 특히 아르데코 양식의 주요특징인 기능성은 백팩, 클러치, 숄더백의 다용도로 변환되는 디자인 그리고 지퍼를 여닫으면 형태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멀티기능으로 표현하였다. 아르데코의 색채는 흑백, 원색을 주조로 금은색의 강렬하게 빛나는 광택이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현란한 오렌지, 민트, 에메랄드 등의 이국적이고 현란한 색채를 이용한 과감한 색 배합에 적극적이었던 면에서 혁명적이었기에 이를 가방디자인 색상에 적용하였다. 심플하고 모던한 양식을 추구하면서도 동방 취향, 아프리카 원시미술, 일본, 러시아 등의 영향을 받아 원시조형을 재해석하거나 이국적이고 화려한 성향도 띄었던 아르데코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자르고 끼우는 수공예적 방식의 소재개발로 응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양식을 절충한 아르데코는 패션과 예술과 문학의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형성시켰다. 하지만 옛것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존 그리고 화려함 이면의 공허한 이중성 또한 아르데코 양식의 일부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기계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수공예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특성으로 대중적인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는 양면성은 아르데코 양식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본 연구는 당대 시대사조의 가방디자인 혹은 디자인 분야만을 참조하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문화 전반을 분석한 요소와 개념에서 시작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자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인 가방디자인 분야에 차별화된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고, 시대사조를 바탕으로 하는 패션상품 기획에 있어서 디자

인 프로세스와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frican Chair. (n.d.). *Bauhaus 100*.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s://www.bauhaus100.de/en/past/works/design-classics/afrikanischer-stuhl>
- Ahn, H. Y. (1990). A study on the Art Deco style and background element influence to the interior des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3(1), 71-81.
- Alexandra, A. S. (n.d.). Paul Poiret: King of Fashion. *Artnet*.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www.artnet.com/magazine/features/spivy/spivy5-15-07.asp>
- An, K. S. (2008).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rt deco expressed in the current fashion: Focused on 2006-2007 s/s f/w collection.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4(3), 274-287.
- Benton, C., Benton, T., & Wood, G. (2003). *Art Deco: 1910-1939*. London: V&A Publications.
- Cho, K. H., & Park, H. W. (1991). The study on the color of art deco fashion in Par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5(4), 381-392.
- Choi, B. H. (1999). The root formative world with Art-Deco furniture design: Focused on the mutual relation of fine art and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10(2), 37-54.
- Choi, Y. R., & Choi, J. W. (2014). A study on Cubism fashion style appearing in modern fashion: Focused on the 2010 S/S-2013 S/S Paris collec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2), 14-28. doi:10.12940/jfb.2014.18.2.14
- Chung, H. J. (2003). A study on fashion and textile design expressed in S. Delaunay's art.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5(2), 103-113.
- Etoile du Nord by A. M. Cassandre. (n.d.). *Pullman Gallery*.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www.pullmangallery.com/item/47/128/1861/%E2%80%98Etoile-du-Nord-by-A.-M.-Cassandre,-1927->
- Fashion: The Debut of the Winter Mode. (1926, October 1). *Vogue*, p. 69.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s://media.proquest.com/media/ch/vogue/doc/192610010075/page/pg.jpg?pg=10%2C11&hl=the%2Cwinter%2Cwinters%2Cof%2Cdebut%2Cdebuts%2Cmode%2Cmodes%2Cthe%2Cfashion%2Cfashions&ui=11&a=ChgyMDE4MDkxNDA2MzQwMDg1OT05MjQ2NTQSBzEwODQ3MDMaCk9ORV9TRUFScQgiDjIyMi4xMDMuMjQ0LjE1KgYyNTYyMDcyCTg3OTE3MTU3MT0PU2luZ2xlUGFnZUltYWdlQgEwUgZPbmxbmVhYXNlbnR1JNagoxOTI2LzEwLzAxXcgB6AIIIBJ1AtMTAwODE4NS0xNDY1OTctUEVSUEVUVUFMLW51bGwtMTg4NzI0NjBBk9ubGluZcoBQE1vemlsbGEvNS4wLChjb21wYXRpYmxlOyBNU0lFIDEwLjA7IFdpbmRvd3MgTlQgNi4yOyBUcmkZW50LzYuMCnSAQINyWdhemluZXOaAgdQcmVQYVlkqgIhT1M6RU1TLVBhZ2VJbWFnZS1nZXRJbWFnZVNvdXJjZS0yYyglQSWhhZ2UvUGhvdG9ncmFwaOICAPICAPoCAU6CAwNXZWl%3D&s=kU5QTLA3a1I0MvPZlqNL51ykCX0%3D>
- Fitzgerald, F. S. (2003).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Kim, W. D.,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25)
- Gombrich, E. H. (2012). *서양미술사* [The story of art] (Baek, S. G., & Lee, J. S., Trans.). Seoul: Yekyo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Han, M. J. (2009). A study on the Art Deco characteristics in furniture design of Emile Jacques Ruhlmann and Jean Dunand.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0(3), 511-519.
- Hillier, B. (1968). *Art Deco of the 20s and 30s*. London: Studio Vista.
- Hillier, B. (1993). *20세기 양식: 1900-1980*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Jo, G. H., Trans.). Seoul: Suhak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cloth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in, J. K. (2011).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 [The story of art: Modernism]. Seoul: Humanist.
- Jonathon, K. (2014, November 11). See How Avant-Garde Art And Fashion Collided In '20s Paris At This Lively Sonia Delaunay Retrospective. *Forbes*.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s://www.forbes.com/sites/jonathonkeats/2014/11/11/see-how-avant-garde-art-and-fashion-collided-in-20s-paris-at-this-lively-sonia-delaunay-retrospective/#1948d0a8552b>
- Jung, S. H. (2005). *산업디자인 150년: 1830년대-1980년대, 디자인사의 주제* [Industrial design 150 years: 1830-1980, theme in design history]. Seoul: Mijinsa.
- Kang, E. S. (2004, January). 1920-1930년대 보그지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illustrations in Vogue from 1920 to 1930].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Conference, Seoul*, 74.
- Kang, S. C. (2001). Cassandre's posters of the subject 'Travel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4(1), 145-158.
- Kim, M. J., Choi, H. S., Kim, Y. H., Ha, J. S., Choi, S. H., & Ko, H. J.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Seoul: Kyomunsa.
- Kim, M. J. (2013). *복식미학: 패션을 보는 시각과 패션에 대한 생각* [Aesthetics in dress: New perspectives on fashion & fashion thinking]. Paju: Gyomoonasa.
- Kim, S. A. (2007). Art Deco style in postmodern furniture desig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6(2), 270-277.
- Laver, J. (2005). *서양 패션의 역사* [Costume and fashion]

- (Jung, I. H., Trans.). Seoul: Sigongart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Lee, H. S., & Kim, J. Y. (2014). A study on the costumes and collaborations in the movie: The Great Gatsb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4), 80-96. doi:10.12940/jfb.2014.18.4.80
- Lee, J. H. (2012). A study on image of women in Tamara de Lempicka's works of 1920-1930's: With focus on image of Garçonn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37(-), 57-80.
- Les robes de Paul Poiret. (1908). *The Internet Archive*.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s://archive.org/details/lesrobesdepaulpo00irib>
- Lee, S. H., & Je, Y. (1999). The study on how art nouveau and art deco's influenced o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4(-), 235-247.
- Le train bleu op.84. (1924). *Vogue Italia*. Retrieved August 19, 2018, from https://images.vogue.it/imgs/galleries/encyclo/manie/011677/04-49905_0x420.jpg
- Lussier, S. (2003). *Art Deco fashion*. London: V&A Publications.
- Park, H. W., & Cho, K. H. (1997). A study of the oriental influences on Poiret's design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 74-85.
- Park, S. M., & Lee, J. J. (2010). An observation of aspects of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n the 1900s.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3), 115-133.
- Set three parchment-clad nesting table. (n.d.). *Pinterest*. Retrieved January 19, 2018, <https://www.pinterest.co.kr/pin/569705421604074151>
- Shin, J. Y. (2008). New York Art Deco and 20th century modern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28(-), 59-84.
- Slesin, S. (1989, April 30). Donald Deskey Innovative Designer, Dies A 94.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October 22, 2017, from <http://www.nytimes.com/1989/04/30/obituaries/donald-deskey-innovative-designer-dies-a-94.html>
- Stevenson, N. J. (2014). *패션 연대기* [The chronology of fashion] (An, J. E., Trans.). Seoul: Two plus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Sung, K. S. (2010). Modernization of fashion illustr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2), 87-106.
- Wassily Chair. (n.d.). *Knoll*. Retrieved January 19, 2018, from <https://www.knoll.com/product/wassily-chair>
- Wikipedia. (n.d.a). Autoportrait(Tamara in a Green Bugatti). *Wikipedia*. Retrieved May 1, 2018,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utoportrait_\(Tamara_in_a_Green_Bugatti\)](https://en.wikipedia.org/wiki/Autoportrait_(Tamara_in_a_Green_Bugatti))
- Wikipedia. (n.d.b). Les Demoiselles d'Avignon. *Wikipedia*. Retrieved May 1, 2018,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es_Demoiselles_d%27Avignon
- Whitford, F. (2000). *바우하우스* [Bauhaus] (Lee, D. I., Trans.). Seoul: Si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Won, M. S. (2008). A study on art deco fashion and art: Paul Poiret, Sonia Delaunay, and Coco Chanel.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9(1), 501-511.
- 1930s Donald Deskey Art Moderne Lacquered Wood Bench. (n.d.). *1stdibs*. Retrieved March 19, 2018, from https://www.1stdibs.com/furniture/seating/benches/1930s-donald-deskey-art-moderne-lacquered-wood-bench-footstool/id-f_510475

Development of Bag Design Using the Aesthetic Motif of Art Deco Style

Nam, Hye Jin • Ha, Ji Soo⁺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rt Deco is a pure, fresh and modern style of distinct sensibility that was form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continues to be applied until today. Departing from past styles, Art Deco was revolutionary in that it formed a new modern image of women, destroyed gender stereotypes, and used new machinery, new materials like metals, and bold color combinations aggressively. Art Deco transcended the distinction between artists and artisans to put an end to the conflicts between art and industry, and formed unique and marketable products, moving in and out of fashion, art, and literature genre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 Deco style were analyzed as they were reflected in fashion, graphic design, furniture design, painting and literature, which shows an era's trend and changes in trend well, and categorized into formative elements like silhouettes, lines, colors, materials, patterns, etc., and aesthetic values. Based on the aesthetic motif of Art Deco derived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concept image map was drawn up, a total of eight bag designs and technical drawings were presented and one prototype was actually mad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new design approach that considers a concept and an element of the whole era, society, and culture, rather than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mporary trend of bag design. Especially, this study aims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differentiated planning in the bag design field in which studies in the design processes and methods are not enough, and is expected to provide a specific help to the planning of fashion products based on an era's trend, as it describes the entire process from designing to actual making.

Key words : art deco, bag design, aesthetic motif, modern design, exotic